

■ 자격명: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 소개말 (시험에 응시하게 된 동기, 시험 준비 기간 등을 서술)

안녕하세요. 저는 제55회 변리사시험 합격자입니다.

1. 시험 응시동기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 입사하여 3년간 근무하다가,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생각보다 전공을 살릴 기회가 없었고, 담당업무가 다소 수동적이고 제한적이었으며, 잦은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함에도 경력을 쌓거나 회사 내에서 성장하는 데 한계를 느껴 퇴사 후 다른 진로로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고민 끝에 변리사를 준비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변리사라는 직업은, 공학 전공을 살릴 수 있으면서 동시에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와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함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또한 전문직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개인의 실력과 커리어의 성장에 직결된다는 점도 장점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점도 개인적으로는 큰 장점이었습니다.

2. 시험 준비기간

2016년 초에 회사 재직 중에 민법 인터넷 강의 수강을 시작하였고, 2016년 8월 회사를 퇴사한 후 전업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의 1차 시험 준비 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1차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2017년 7월 첫 2차 시험(동차)을 치른 후(불합격), 2018년 7월 두 번째 2차 시험(기득)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 차수별, 과목별 준비방법 (공부한 방법, 합격 득점 요인 분석 등을 서술)

1차 시험 준비방법

1. 민법

회사 재직 중이었던 16년 초부터 약 6개월간 민법 기본강의를 인터넷으로 수강하였습니다. 회사일과 병행하다 보니 완강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 16년 8월에 전업으로 공부를 시작할 때 즈음에는 상당히 까먹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복습 및 문제 풀이와 병행하지 못한다면, 민법 기본강의의 수강 효과는 떨어지게 됨을 느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중요 개념을 노트에 직접 수기로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여, 처음에는 민법 공부할 때도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그 양이 방대하고,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어서 이러한 공부 방식은 전혀 효과적이지 못하였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쳐 제가 선택한 공부 방법은, 시중의 요약서를 정독하면서 이해하고, 회독수를 반복하면서 점점 회독 속도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변리사 시험은 물론 변호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시험 등의 민법 기출문제를 풀면서, 지문 하나하나 모두 이해하고 요약서에 없는 내용은 옮겨 적어 단권화 하였습니다. 틀린 지문은 왜 틀렸는지 꼭 확인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공부하면서 접하는 모든 객관식 문제, 판례, 기출문제 등의 내용을 요약서에 옮겨 단권화하였고, 이러한 작업은 시험 직전까지 이어졌고, 계속 반복회독 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이를 동안 1회독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특허법 및 상표법

기본 강의를 수강하였고, 기본서를 정독하면서 이해를 한 다음, 요약서에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절차적 요소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래프와 표를 이용하여 정리하면서 이해하였고, 다른 산업재산권법(상표법, 디보법)과 비교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우선, 기출문제 OX문제를 풀면서 기출문제를 처음 접했고, 시중 객관식 문제를 1회 모두 풀고 틀리거나 체크해둔 문제 위주로 다시 반복하여 풀면서 1.5회독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10년 기출문제를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또한 최신 판례강의를 통해 중요판례 및 최신판례의 결론과 논리를 숙지하였습니다. 역시 모든 내용을 요약서에 단권화하였고, 시험 직전에는 회독에 집중하였습니다.

3.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은 1차 시험에서 10문제 출제되어 비중이 낮고, 2차 시험에서 선택과목도 아닌바, 투자시간을 다소 줄였습니다. 요약서가 아닌 기본서에 단권화하였고, 객관식 문제집은 풀지 않고, 최근 10개년 기출문제만 반복하여 풀고 암기하였습니다.

4. 자연과학

(1) 물리

전공이 기계공학이어서, 물리 개념은 어느 정도 잘 잡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조금 생소한 현대 물리 위주로 기본서를 꼼꼼히 읽으면서 공부하였고, 객관식 문제집과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기출문제는 구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구하여 다 풀었습니다. 자주 나오는 공식과 개념은 따로 노트에 정리하였고, 시험 직전에는 이것으로 복습하였습니다. 자연과학은 시간 싸움이라 생각하여, 나름 주력 과목이었던 물리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자, 공식을 최대한 많이 암기하였습니다.

(2) 화학

개인적으로 화학은 가장 취약한 과목이었습니다. 때문에 기본강의를 수강하면서 기본서를 수회 정독하면서 내용을 이해했고, 문제도 많이 풀었습니다. 기본서 예제 및 객관식 문제집과 기출문제를 모두 풀었고, 역시 노트에 주요 개념과 공식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역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기 위해 많은 문제를 풀어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에 익숙해지려고 하였습니다.

(3) 생물

자연과학 중 가장 내용이 방대하고, 암기할 것이 많은 과목입니다.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과목이기도 합니다. 기본강의를 들었지만, 기본서 내용도 너무 방대하여 정독하기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기출문제를 먼저 분석하여, 자주 나오는 파트를 우선적으로 공부하고 암기하였습니다.

(4) 지구과학

자연과학 4과목 중 만점을 노릴 수 있는 과목입니다. 기본강의로 개념을 이해하고, 기본서를 정독하면서 역시 기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기본서에 없는 내용은 단권화/정리하였습니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표시해두고 집중적으로 암기하였습니다.

5. 기타 조언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권화와 기출문제입니다. 결국, 기본강의/기본서를 통한 이해, 기출문제와 객관식 문제 풀기, 지속적인 단권화와 회독 수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차 시험 준비 방법

1. 동차 기간

민사소송법은 1차 시험 직후인 17년 3월부터 기본강의, 4월 사례 강의, 5월 기초 GS, 6월 실전 GS를 수강하였고, 특허법과 상표법은 3월 기초 GS, 4월과 5월에 각각 실전 GS를 수강하였고, 회로이론은 5월 실전 GS만 수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부족한 시간으로 인해 준비가 많이 미흡했고, 충분한 암기도 되지 않은 채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첫 2차 시험 응시 직후 불합격을 예감하였고, 1달만 휴식을 한 뒤, 바로 기득을 준비하였습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달리 논술형입니다. 답안에 현출할 수 있도록 공부하여야 하는데, 동차 기간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1차 시험과 비슷하게 내용을 입력하는 공부만 하였습니다. 기득 기간 때에는 출력식 공부를 하고자 하였고, 이하 기득 기간의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기득기간

(1) 민사소송법

우선, 기본서를 시험 직전에 1회독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편집과 배치가 답안 현출에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여, 고민 끝에 서브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1) 기본서에서 누락 내용이 없을 것, 2) 답안 현출에 적합한 형태/목차/문장으로 정리할 것이라는 두 원칙을 지켰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서브노트만 회독하여 모두 암기하려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또한, 현출을 위한 공부를 하고자 처음부터 답안 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2차 시험 때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 것을 느껴, 최대한 답안을 많이 써보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만, 답안 쓰기에만 매몰되면 기본 내용 정리와 암기, 잘못된 습관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9월에는 기본서를 정독하면서 목차만 노트북을 이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소법의 흐름과 각 내용의 위치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9월부터 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룹 스터디를 통해 매일 50점 분량의 답안지를 작성하였고 피드백 하였습니다.

10월에도 매일 50점 분량씩 답안을 작성하였고, 이때부터 서브노트를 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본서를 정독하면서, 답안에 현출할 논점, 목차, 내용들을 기본서의 순서 그대로 정리하였습니다.

11월에 결과 발표가 있는 직후부터는 매일 100점 분량씩 답안 작성을 하였습니다. 심화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를 높였고, 서브노트 제작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기본서에 부족한 판례 내용들을 추가하였고, 답안에 현출하기 적합한 목차를 발견하면 이를 채용하여 서브노트에 반영했습니다.

12월에는 사례집을 통해 빠르게 논점을 추출하는 연습도 병행했습니다.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GS 수업을 들으며 실전처럼 작성하는 연습하였습니다.

매일 100점 분량 쓰기로 인해 복습 및 서브 제작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 주 3일로 조절하면서 탄력적으로 조절하였습니다. 틈틈이 암기를 위해 작은 메모지에 암기할 내용과 판례를 적어 걸어 다니면서 외웠고, 포스트잇에 내용을 적어 화장실이나 자취방에 붙여두기도 하였습니다. 자주 노출되면서 암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푸는 문제와 접하는 판례가 쌓여갈수록 서브노트에 추가하는 내용도 많아졌습니다. 포스트잇을 이용하여 내용을 추가하였고, 목차도 계속 답안 현출을 생각하면서 수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서브노트만 반복 회독하면서 암기에 치중했습니다. 암기를 위해 두문자도 적극 이용하였고, 두문자를 이용한 암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2) 특허법

시중에 나온 모든 기본서를 입수하여, 하나의 서브노트로 제작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목차 구성으로 된 기본서가 없었기에, 기본서들을 비교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리고 답안에 현출하기 좋은 목차를 구성하여, 그 안에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1월부터 답안 작성을 시작하였고, 1월 기초 GS, 2월부터 5월까지의 실전 GS를 수강하면서 적어도 1주일에 3일 이상은 답안 작성을 하였습니다.

접하는 판례와 논점을 모두 서브에 정리하였고, 암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특허법은 민사 소송법 못지않게 그 내용이 많아 서브 제작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거의 5월이 되어서야 완성되었습니다. 때문에 회독과 암기가 부족하였고, 마지막에 특허법 암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특허 암기에는 두문자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암기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면 외웠던 것도 까먹는 사태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럴 때 두문자 하나가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부지런히 두문자를 따서 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상표법

시중에 나온 기본서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구성을 가진 기본서 하나를 골라, 이것을 기준으로 서브노트를 제작하였습니다. 목차를 잡고 틀을 잡은 다음, 판례와 기본 이론을 이해하여 이것들이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생각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이 가장 적은 과목인바, 가장 먼저 서브노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계속 암기하면서 회독하였습니다.

상표법의 경우 특히 다논점 문제가 많고, 논점 누락이 치명적인 과목인바, 사례집을 통해 목차 추출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저는 1월 기초 GS를 처음 수강하기 전 오전에 사례집 11문제씩 목차를 잡은 뒤 수업을 수강하였는데, 효율이 정말 좋았고, 실력도 가장 빨리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11월부터 답안 작성을 시작하여, GS 수업을 통해 주 2회씩은 답안 작성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4) 회로이론

기본강의를 동차 기간 때 수강하였고, 기득 때는 따로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9월~12월에는 법 과목에 집중하였고, 1월부터 스터디그룹을 형성하여 매일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총 2권의 문제집과 다수의 GS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본 개념은 노트에 정리하였습니다. 공학 과목은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을 수 있는바, 그룹 스터디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자격 취득 후 진로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재 혹은 예정 진로에 관해 서술)

저는 현재 변리사 시험 합격 후에 특허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변리사의 진로는 다양합니다. 특허 법인에서 변리사 본연의 업무인 출원, 등록, 심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고, 벤처캐피탈과 관련한 금융 분야, 기술거래, 특허전략수립 등 다양한 프로젝트 분야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술 분야별로 나뉘며 업무분야로 국내/아웃고잉과, 인커밍으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합격 후 많은 선배들과 만나고 정보를 얻어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조언 등 (수험 기간 중 하루 일과, 스트레스 또는 슬럼프 극복 방법, 응원의 한마디 등을 서술)

1차 시험 준비 기간에는 아침 8시 반 내지 9시에 도서관에 착석하여, 밤 10시까지 공부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반나절 정도는 늦잠을 자거나 일찍 집에 가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주변 동기들을 보면, 일주일에 하루는 꼬박 쉬는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2차 시험 준비 기간에는 아침 8시 내지 8시 반에 도서관에 착석하여, 밤 11시까지 공부하였습니다. 2차 시험은 응시과목은 줄어들지만 공부할 양이 더 많고, 암기할 것도 많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늘렸습니다. 1차 시험 준비와는 달리, 쉬는 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성향에 맞게 공부 루틴을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하루 종일 쉬면 불안해하는 성격이라서, 매일 도서관에 가되 조금 늦잠을 자고 늦게 도서관에 가는 식으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물론 주변 동기들 중에 일주일에 하루 혹은 반나절을 온전히 쉬는 동기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체력, 생활습관, 멘탈 등을 고려해서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차 기간에는 거의 혼자 공부했는데, 이때 불안감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혼맥을 하면서 풀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공부로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면 다음날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어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기득 기간에는 그룹 스터디를 했는데, 스터디원들 덕분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수험 기간을 잘 보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어서 대화하면 많이 공감도 되고,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응원도 해주면서 불안감이나 외로움도 많이 해소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동차 기간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기득 기간에는 슬럼프 없이 잘 보냈고 이는 모두 스터디원들 덕분인거 같습니다.

또 저는 오히려 쉬면 불안감이 몰려오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매일 도서관에 갔습니다(학원 가는 날을 제외하고). 도서관에 앉아있으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덜했고, 가끔 교내 카페에 가서 주변 분위기를 바꿔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합격에 대한 불안감이 가끔 몰려오면, 저는 합격한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더 열심히 해서 꼭 붙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인드컨트롤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리사 시험에 떨어져도 크게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불합격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불합격했다 하여 크게 좌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합격한다면 분명 행복한 일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달콤한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라도 이 시험은 준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들 저마다 꼭 합격해야할 이유가 있을텐데, 수험 기간동안 그 이유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서 꼭 좋은 결과 만드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